

직업특성에 따른 인터넷 및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고찰

오유미, 양유선

0000000000

■ 필요성 및 목적

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가 높아지고,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제공 또한 더욱 활발해져 왔고, 자연스럽게 인터넷이 국민 건강증진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. 따라서 정보의 단순전달의 수준을 넘어 양질의 신뢰성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.

■ 연구의 목적

양질의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 제공하고,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터넷 및 건강정보 행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다.

■ 연구방법

건강길라잡이(<http://www.hp.go.kr>)를 사용하는 회원들 1,54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현황을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. 일반인과 보건인 즉, 직업특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 건강정보 이용행태 대하여 비교·분석하여 그 결과의 의의를 해석하였다.

〈표-1〉 조사분석 내용

지표구분	내 용	세 부 항 목	조사항목수
인구학적 특성	- 일반적 특성	연령, 성별, 거주지역, 교육정도, 직업	5
	- 건강관련 특성	본인인지 건강상태, 건강관심도	2
인터넷 이용 특성	- 일반적 인터넷 이용	인터넷 접속속도, 이용 장소, 평균 이용 빈도, 일주일 평균 이용시간,	6
	-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	인터넷 이용목적, 건강정보 이용 빈도, 건강정보 이용목적, 건강길라잡이 이용빈도	3

■ 결과

설문응답자 1540명 중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인 46.5%(762명)이며, 보건의료인이 50.5%(778명)로 건강길라잡이는 보건의료인이 많이 접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이를 기준으로 건강관련 특성 및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.

1) 사용자의 일반적 특성

- 성별은 남자가 31.7%, 여자가 68.2%였으며, 교육수준은 대학교 재학이나 졸업이 74.7%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연령대는 10대~40대까지 고르게 나타남.

2) 일반적 인터넷 이용 행태

- 인터넷 속도는 보통(49.2%)이나 빠르다(36.6%)라고 대답하였으며,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학교/직장(57.0%), 집(39.5%)으로 나타남. 평균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간은 일주일간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61.5%, 5~6일 24.4%로 나타나 대부분 5일 이상 인터넷을 사용함. 일주일에 3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32.4%, 3~5시간이 17.1%로 나타나 매일 사용하지만 사용시간은 많지 않음.

3) 건강관련 특성

- 본인인지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전체 83.9%이며,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판단한 비율이 일반인은 44.6%, 보건의료인은 39.3%로 보건의료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.
-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전체 63.4%가 '관심이 많다'라고 답하였는데, 관심도는 일반인이 42% 보건의료인이 52.0%로 보건의료인이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
4)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

- 인터넷 이용목적은 정보검색/뉴스(58.2%), 자료다운로드(16.7%), 게임(8.4%) 순으로 나타남. 일반인은 정보검색(28.6%), 게임(8.4%) 인터넷쇼핑(3.1%) 순으로 주로 취미나 오락을 목적으로 하였으며, 보건의료인은 정보검색(29.7%), 자료다운로드(14.1%), 동호회 활동(4.3%) 순으로 나타나 전문정보습득을 목적으로 함.
-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는 가끔 이용(49.7%), 많이 이용(25.8%), 매우 가끔 이용(14.7%) 매우 많이 이용(9.7%) 순으로 나타남. 직업군으로 비교하여보면 일반

인은 가끔 이용(34.3%), 매우 가끔 이용(10.7%) 순으로 나타나 자주이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, 보건의료인은 많이 이용(22.9%), 가끔 이용(15.4%) 순으로 나타나 일반인보다 건강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목적은 건강생활(36.2%), 학업 및 연구(26.3%), 업무(23.8%) 순으로 나타남. 일반인은 건강생활(29.0%), 학업 및 연구(10.2%), 질병관리(5.2%) 순으로 나타나 주로 생활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, 보건의료인은 업무(22.8%), 학업 및 연구(16.1%), 건강생활(7.2%) 순으로 나타나 업무나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
- 건강길라잡이 이용빈도는 가끔 이용(54.7%), 많이 이용(23.0%), 매우 가끔 이용(16.8%), 매우 많이 이용(5.5%) 순으로 나타남. 직업군으로 비교하여보면 일반인이 가끔 이용(27.8%), 많이 이용(9.7%), 보건의료인은 가끔 이용이 (26.9%), 많이 이용(13.3%)으로 나타나 직업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건강길라잡이를 이용하고 있음.

■ 고찰

일반인은 인터넷을 취미나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고, 건강정보는 생활정보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. 보건의료인은 일반인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, 인터넷을 전문정보습득을 목적으로 하고, 건강정보는 업무 및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.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